

다산포럼

김용정



근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정계개편이다. 차기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수많은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반응도 갖가지다.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결국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이합집산, 합종연횡, 정략적 새 판짜기의 일환'이라는 지적에서부터, '민주·반민주 전선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치권의 필연적 명제'라는 주장까지, 그야말로 백가쟁명(百家爭鳴)식의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제(諸) 정파와 정치인 개개인의 주장과 명분이야 여하튼 그 밑바탕에는 정치적 이해타산이 깊게 깔려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민주 개혁 평화세력의 대연합이라는 거장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목표는 반 한나라당 전선 구축일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당(黨) 생명의 시한부 연장을 겨냥했을 것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정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보수대연합의 가치를 내걸고 범(汎) 우파 결집이라는 세몰이에 나섰다. 군소 정치세력들로 정계개편과정에서의 일정역할을 자임하면서 대선 후의 영향력과 지분 확대

이다.

한국 정당들은 민주화 이후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중심 이슈와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정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정치세력들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제 세력 간의 합종연횡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책략과 술수 찾기에만 골몰해 있다. 국민도, 국가도, 민생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권 재창출'과 '정권 재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계개편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를 위한 '필승 짜릿기 조합'의 모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새도 그려려니와 그 실질에 있어서도 과거 낡은 정치의 표본으로 지적된 땅따먹기식 정치개입,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대한 줄 세우기, 지역야합 형 판짜기 같은 구사대적 망령들이 척박하기만 한 현실정치의 시공간을 배회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정계개편을 타기해야 할 것인가? 아니다. 현시점에서 정계개편의 필요성은 너무도 절박하다. 한마디로 그것은 꿈을 대로 꽂아야진 현 정당제도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해 내야 하기 때문

현실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는 냉소를 넘어 분노에 가깝다. 엄청난 사회적 불만이 팽배해 있지만 정상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강렬한 변화를 바라는 사회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3

분의 2 이상이 정계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정당들은 오래전부터

'정치개입' 그들만의 살롱(salon)으로 전락해 버렸고 정당 간 경쟁이란 것도 이해

관계를 같이한 정치세력, 그리고 소수 정치엘리트들의 단기적 정치목표를 둘러싼 이전투구식 정치싸움일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 변화와 다양한 요구, 그리고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담아내지 못한 채 여전히 기득 이익의 안정적 유지와 권력 투쟁에만 매달려 있었다.

이제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체제가 사회현실과는 무관한 정치 엘리트 카르텔의 폐회로 속에서 계속 작동하도록 놔두어서도 안 된다.

주권자이자 정치소비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 정계개편이 정치인을 위한 이합집산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정치발전, 역사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

따라서 정계개편 문제를 지금의 정당과 정치엘리트들의 자의적 결정에 맡겨둘 수는 없다. 그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대정신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 치원의 대중적 압력이 행사되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미래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더 이상 존재할 근거가 어디에 있겠는가.

〈다산연구소 대표·다산연구소 제공〉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김세화



지난 13일부터 교육감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 선거운동의 시작과 함께 후보자 전원이 클린선거·정책선거를 치르겠다고 공식 약속은 하였다. 그러나 이미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과 향응제공 등으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 고발된 후보자가 두 명이나 있어, 클린선거 협약에 냉소적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광주교육을 바로 세우고 광주교육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결국은 교육의 목적으로 걸맞게 훌륭한 인재와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는 것은 시민사회 노력만으로 되

교육자인 그들의 경력에 지워지지 않을 오점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주 45명의 학운위원들이 클린선거 유도로 교육자치의 징검다리를 놓았으며, 몇 가지 선언을 했다. 이 학운위원들은 특정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보고 선거할 것과 해당학교에 선심성 공약을 유도하지 않을 것, 그리고 특정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사람을 뺏지 않을 것 등을 신언하였다.

이는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대리인으로서 책임있는 선언으로 보여진다.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싶다는

후보자·학운위원·시민 클린 실천

는 것은 아니다.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투표권자인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진정한 교육의 주체인 시민들의 하모니가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접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모두 네 명이다. 이 후보자들은 대학교수, 교육장, 교육위원 등으로 재직중이며, 교육행정경력도 많다. 그러나 현재 광주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회려한 경력 외에도 또 다른 자질이 필요하다. 그것은 청렴성이고 부조리한 관행을 거부하는 용기이고, 견리사의 (見利思義)하는 마음가짐이며 교육의 주체를 해야하는 배려이다.

이는 당연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부터 요구된다. 출마자들이 앞에서는 를 린선거 다짐하고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협된 약속을 하고 부정한 지원을 받으며, 불법과 손잡을 생각를 했다면, 잠시 스톱! 130만 광주시민 한명 한명이 후보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목하고 있으며, 선거과정의 작은 부정도

이들의 바램도 깊은 공감을 주었다. 3천 500여명의 학운위원들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을 뽑아준 사람들을 대신하여 투표하는 것이다. 학운위원들에게 학교장의 표 단속에 대해서는 아니라, 학연·지연·이익을 뛰어 넘은 냉정한 한 표를 부탁드린다.

후보자들의 면면과 공약을 살펴보고 여론을 형성하며 학운위원들이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중요한 역할, 결국 시민들의 뜻이다. 간접선거로 소외되었다고, 무관심하지 말고 간접선거일수록 더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간섭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자치가 멀지 않았다고 본다. 이런 선거는 교육자치 예비하며, 광주교육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다.

이번 선거는 광주교육 바로 섬을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학운위원 그리고 시민들의 의기투합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

〈광주YMCA 기획협력팀 간사〉

잘난사람 보면 반감이 생기는 증후군 없어져야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 아이가 요즘 풀이 죽어 지낸다. 학교 영어 시간에 '아는 척'을 했다가 또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다는 것이다.

7살 때 업무때문에 미국에 있던 아빠와 함께 살다가 거의 혼자인 수준으로 영어를 잘하는 것이 문제였다.

아이는 이제 학교가기조차 싫어한다. 키 작은 꼬마들이 나뭇가지를 휘둘러서 키가 큰 양귀비를 잘라버리 듯 걸출한 인물이나

잘 되어가는 형상을 보면 우선 반감이 먼저 생기는 뒤틀린 행동양식을 이른바 '키 큰 양귀비 증후군(Tall Poppy Syndrome)'이라고 한다.

원어민 수준의 발음이 학교 수업분위기를 망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영어 수업을 즐겁게 해줄 것 같은데 잘 하는 사람을 더욱 독려하고 칭찬해줘야 하지 않을까. 속상하다.

▲이현미·광주시 남구 백운동

이다.

한국 정당들은 민주화 이후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중심 이슈와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정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정치세력들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제 세력 간의 합종연횡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책략과 술수 찾기에만 골몰해 있다. 국민도, 국가도, 민생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권 재창출'과 '정권 재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상 '정권 재창출'이 무망하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밤(發)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역학구도로는 사실